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2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Insight

ETF 개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완전 액티브 ETF 등장 예고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의 비대칭적 규제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유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규정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국내 상장 ETF들의 종목 유형이 더 확대되고, 국내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ETF들의 등장도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2분기 중 완료 예정이며, 금감원과 거래소의 심사까지 거쳐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개정안 내용들이 반영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국내 데일리옵션 커버드콜 ETF, 개별 종목 기반의 커버드콜 ETF도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 중인 액티브 ETF 종목들도 더욱 유연하고 활발하게 커버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등장 가능성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표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지수가 아닌 단일 종목(Single-Stock ETF)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높이거나, 매도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략의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TSLL, NVDL 등의 미국 상장 ETF들 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들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상장 ETF들은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요건에 따라 하나의 ETF 종목에 최소 10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어야 하고, 종목당 최대 비중이 30%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종목을 30%까지 편입하고 70%는 채권 종목들로 혼합하거나, 2~3개 종목들을 30% 내에서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7~8개의 종목을 낮은 비중으로 함께 조합하는 형태 등으로 새로운 ETF들이 꾸준히 등장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들이 상장될 수 있겠다. 다만 미국과 동일하게 레버리지 비율은 ±2배에서 제한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 파생상품 사용 규정을 현대화(Rule 18f-4)하면서 펀드의 전체 레버리지 리스크를 VaR 기준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펀드의 VaR이 기준 포트폴리오(지수 등) VaR의 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대 VaR 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 자산의 2배를 넘어가는 레버리지 ETF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황이다.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SOXL/SOXQ, TQQQ/SQQQ 등의 3배 레버리지 ETF들은 상기 규정 변경 이전인 2010년 상장 종목들로, 당시에 기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거래되고 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들은 기존 레버리지 ETF보다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사전 교육 내용에 심화 부분이 추가되며,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의 조건을 적용한다.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의 기준은 기존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에게도 새롭게 반영되는 내용이다. 종목명에는 '단일종목' 표기가 의무화된다.

2) 커버드콜 등 구조화 ETF 개발을 위한 기반(옵션 다양화) 마련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는 지수와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파생형(구조화) ETF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월배당 ETF처럼 정기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진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수 및 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약 71%가 국내 자산이 아닌 미국 자산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옵션 만기를 기존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로 확대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별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위클리옵션(목요일 만기)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내 투자 ETF를 기초로 하는 월간 및 위클리 옵션 상품도 신설하여 새로운 종목 형태의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 확대 조치 역시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3) 지수 연동(상관계수 기준)없는 완전 액티브 ETF의 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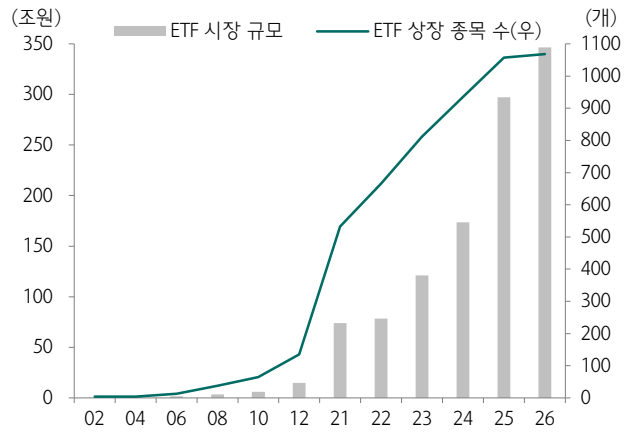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에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새로 상장된 ETF 중 84%가 액티브 ETF였고, 연말 기준으로 전체 ETF 종목 가운데 54%가 액티브 ETF일 정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패시브 ETF에만 집중해왔던 주요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BlackRock, State Street, Invesco, Vanguard와 같은 전통적인 패시브 중심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JP Morgan과 First Trust, Direxion 같은 운용사들은 이미 라인업의 절반 이상을 액티브 ETF로 구성 중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상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ETF는 상장지수 집합 투자기구로서 반드시 특정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자유로운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패시브 ETF는 0.9)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운용을 통해 확실한 초과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관계수의 제한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가 상장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ETF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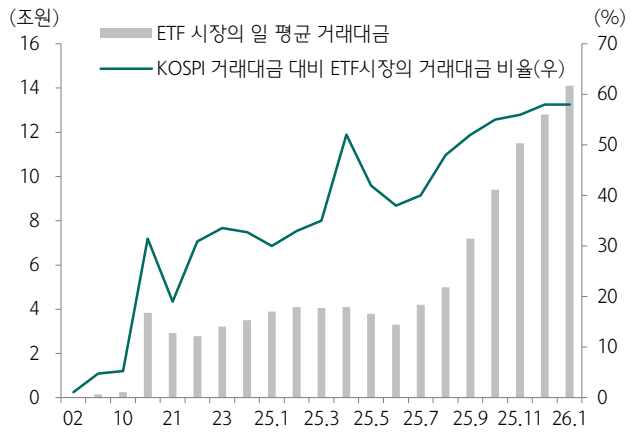
우리 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는 ARK Invest의 혁신기업 ETF들처럼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적극적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나, 앞서 새로운 옵션들과의 조합을 통해 Amplify의 DIVO/QDVO부터 Yieldmax의 ULTY처럼 다양한 전략이 반영된 액티브 ETF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운용 역량이 뛰어난 중소형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도 예상 가능한 변화의 내용이 되겠다.

도표 1. 한국 ETF의 시가총액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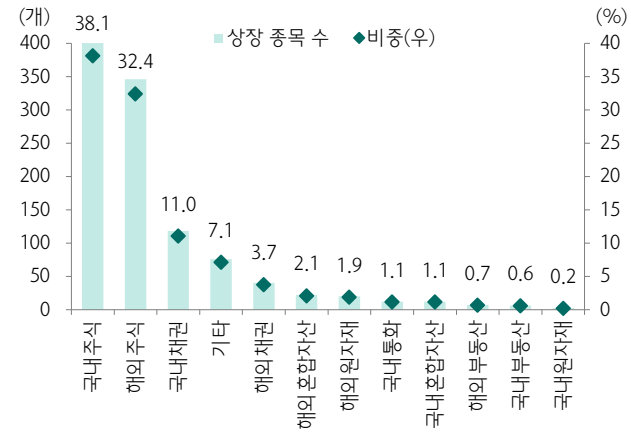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2. 한국 ETF 시장의 일 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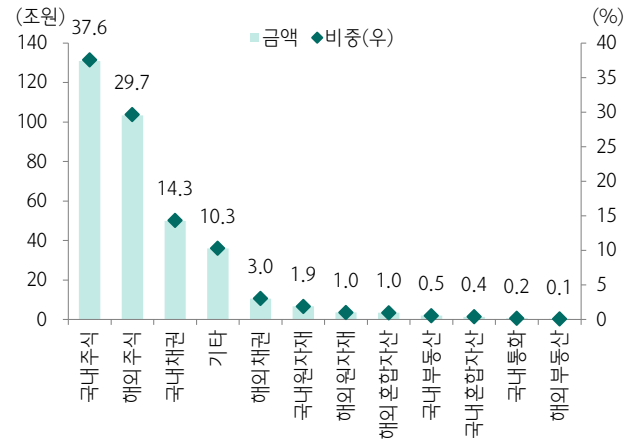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3. 기초자산별 ETF 상장 종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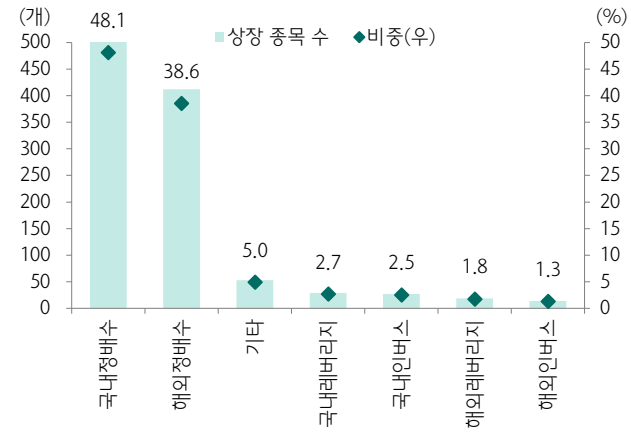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4. 기초자산별 ETF 순자산(AUM)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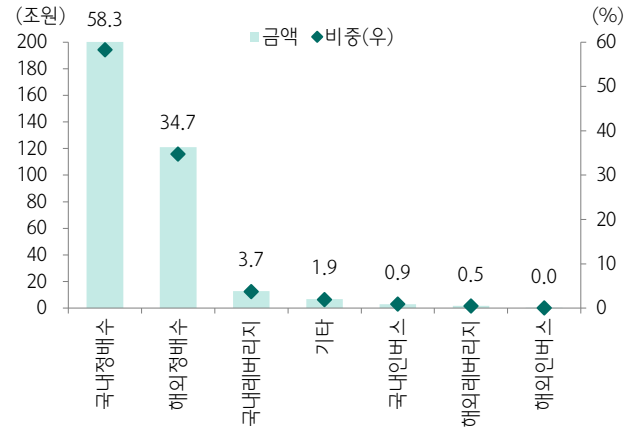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5. 정배수/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상장 종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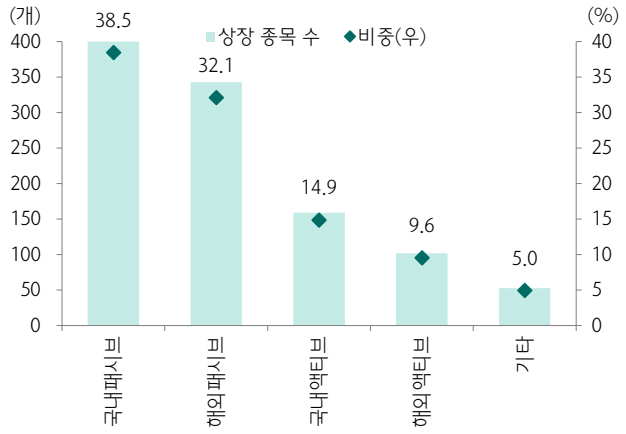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6. 정배수/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순자산(AUM)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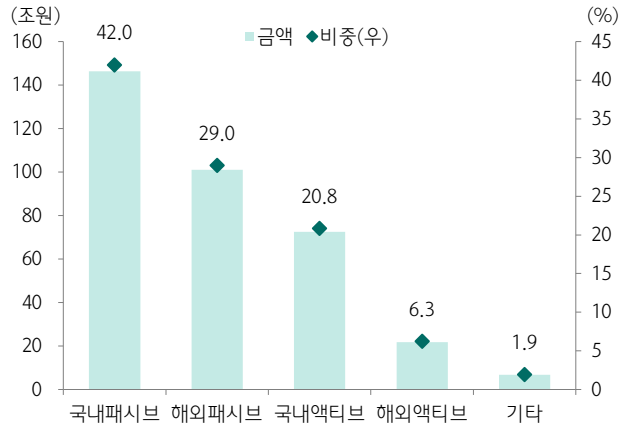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7. 패시브/액티브 ETF 상장 종목 수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 8. 패시브/액티브 ETF 순자산(AUM) 규모



자료: KRX,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